

아름다운 기억

이현숙 / 전업주부

시 원한 물줄기가 가깝게 느껴지는 요즈음 지리산 계곡에는 아직도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을까?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신비. 투명한 가슴만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안에는 가족 모임이 있다. 몇 해 전 여름 지리산에 살고 계시는 시아주버님댁으로 여름휴가를 갔었다. 많은 곳을 다녀보지 못한 나였기에 처음으로 맞이 했던 지리산은 마냥 경이로웠었고 웅장한 산세와 계곡에 흐르던 맑디 맑은 물이 얼마나 투명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많은 식구들의 이동이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 숲에 쌓여 지내던 날들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 벗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 그 빛났던 순간들, 지리산 계곡에서의 추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 때는 조금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걸 보면 추억은 영원히 녹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오래 묵은 것일 수록 값이 더 올라가는 골동품처럼 더욱 소중하게 간직되는지도 모르겠다. 그 해 여름날 밤 숙향기 알싸한 모기향을 피워놓고 여러 동서들과 마당의 큰 정자에 누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바라보았던 밤 하늘은 빛나는 보석처럼 얼마나 영롱하였던지...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어느덧 하늘이 부엌에 열리기 시작했고, 손이 시리도록 차거운 물에 쌀을 씻어 마당가 화덕에 솔가지로 불을 지펴 밥을 짓다보니 얼굴은 어느새 숯덩이가 되고 눈과 코는 콧눈물 범벅이 되었으나 그래도 마냥 즐거웠던 날들이었다.

전날의 밤샘으로 인하여 여자들 모두 지쳐 정자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나의 콧속으로 솔솔 스며들지 않겠는가? 호들갑을 떨며 일어나 정자 밑을 내려다보니 그 곳에는 언제나 점잖기만 하시던 큰시아주버님께서 손수 은어튀김을 하고 계셨다. 항상 말씀이 적으셔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아주버님 그 분께서 가족들을 위해 아니 우리 제수씨들을 위해 은어튀김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놀라웠던지! 후다닥 일어나 쪼르르 정자 밑으로 내려가 버릇없게 손가락으로 은어(맑은 강물 1급수 이상에서만 산다는 은어, 난 그 날 처음으로 은어를 볼 수 있었고 담백하고 고소한 은어튀김을 먹을 수 있었다.) 튀김을 집어 먹으며 조잘대는 나에게 큰시아주버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면 더 맛있는 은어튀김을 해주시겠다고 그분... 그 큰시아주버님께서는 이제 우리 곁을 아주 떠나 영면의 나라에 계신다.

요즘 세상엔 무엇이든 쉽게만 생각하려고 한다. 쉽게 만나고, 좋아지고, 헤어지고, 금방 잊어버리는 인스턴트식으로... 그러나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오래 연연해할 줄도 알며 끈기로 상대를 감싸주는 무쇠술 같은 정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일까!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인줄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고 난 후에 사람들은 자신이 간직했던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된다. 부부간의 사랑, 또는 자식간, 동기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그러하리라 여겨진다.

사람은 가고 기억만이 남는 것일까? 우리들 기억의 바다에는 수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들, 그리고 아름다웠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한 때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일 뿐 어느날에는 그 기억마저도 희미하게 지워져 버린다.

하지만 나는 아름다웠던 기억들은 오래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 하나 꺼내어 내 삶에 생기를 불어 넣고 싶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 중에 지리산 계곡 덕천강에서의 즐거웠던 기억들, 큰시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 그리고 지리산 맑은 물과 그 속에서 살고 있을 투명한 은어를 오래 오래 기억하고 싶다. 물이 영원한 것처럼... ●

지금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걸 보면

추억은 영원히 녹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오래 묵은 것일 수록 값이 더

올라가는 골동품처럼 더욱 소중하게

간직되는지도 모르겠다. 그 해 여름날 밤

썩향기 알싸한 모기향을 피워놓고 여러

동서들과 마당의 큰 정자에 누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바라보았던 밤 하늘은 빛나는

보석처럼 얼마나 영롱하였던지...